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20. 2 | Vol. 301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법왕사 칸타빌레 예술단 단원 모집

(이탈리아어: "노래하듯이" 라는 뜻)

※ 108명 모집 현재 총 40명

법왕사에서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건전한 여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는 법왕예술단을 창단하고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감독 이달철

계명대학교 작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 초대회장
(전)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초대회장
(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현)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상임고문

주요작품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성불을 위하여' 등 다수

임원진

감독 | 이달철

단장 | 박경란

부단장 | 조영숙, 김미숙, 우연희

감사 | 김순화, 박경희

사무국장 | 최근수

총무 | 이서현

재무 | 추미성

법왕예술단 연습 안내

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3층 만불전

자격 | 어린이 포함 남녀노소 불문

분야 | 찬불가, 가요, 각종 악기(서양악기, 국악기), 무용 (현재 32명)

밴드부

김장우 최근수 정재영 김경태

이현호 전영신 김형표 월인스님

연습: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세컨드기타
김장우



리드기타
정재영



베이스기타
김경태



색소폰
이현호



비올라
전영신



드럼
월인스님



매니저
김형표



Vol. 301호

04 깨침의 향기

진정한 보살행은 화목한 가정에서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6 비슬산방

호국 불교를 다시 생각한다 · 실상 주지스님

08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47)

고따마 부처님 전생 십바라밀 이야기 · 영일스님

12 명찰 순례

조선 왕실의 원당(願堂) 팔공산 파계사(把溪寺)

18 선(禪)이란 무엇인가(1)

22 경자년에 알아보는 십간 십이지(十干 十二支)-2

26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노년기 눈건강 지키는 법...안과 정기검진 생활화 '최고야!'

30 법왕사소식

32 법왕사게시판

35 해오름소식

36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라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4(서기 2020)년 2월 1일 발행 | 통권_301호 | 중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영일, 상철, 자윤, 김철호, 이점례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진정한 보살행은 화목한 가정에서

원공당 정무 대종사



제사는 왜 지내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섬섬해서 지낸다’, ‘후손된 도리로 지낸다’, ‘예법(禮法)으로 지낸다’ 등 주로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보통 제사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화목(和睦)과 단결(團結)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못다 나눈 정을 나누다보면 자연스럽게 화목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후손들에게 효도교육(孝道敎育)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처럼 온갖 정성을 다 기울려 제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 자체가 후손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선망부모(先亡父母)의 은혜(恩惠)에 보은(報恩)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입지(立志)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고, 잘 살아 보려고, 또는 공부를 하겠다는 큰 뜻을 세우고 고향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고향에 가서 그때의 마음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제사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

니다. 불교에서는 여기에도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불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영가(靈駕)를 천도(遷度)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도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고혼(孤魂)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 의미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불교의 영가천도는 바로 우리 조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수(祭需)로 차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제수에는 삼채(三彩)와 삼과(三果)를 써야합니다. 삼채는 도라지, 고사리, 그리고 미나리를 말하고 삼과는 밤, 대추, 감을 말합니다. 뿌리를 쓰는 도라지는 조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줄기를 쓰는 고사리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다 보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꼭 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미나리는 마디마디 잘라 심어놓아도 각 마디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는 후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음식만 봐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삼과의 첫 번째는 밤입니다. 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터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조상님은 밤알처럼 후손을 위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대추는 한 가지에도 수백 개씩 줄줄이 열립니다. 이는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씨에서 곧바로 자란 감나무에는 제대로 된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껏 열린다는 것이 먹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열매인 ‘고욤’입니다.

씨알이 좋은 감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감나무에서 가지고 온 가지로 접을 붙여야 합니다. 이 말은 집안에서만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큰 인물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스승님,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큰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효행(孝行)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살(菩薩)이라는 것이 달리 보살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어머님들은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에게 너무 불효(不孝)를 해 그 양심의 가책으로 제사를 잘 모시려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

호국불교를 다시 생각한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법왕사는 창건 이래 약 30년 동안 백고좌법회를 39회에 걸쳐 봉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분의 고승 대덕을 모시고 100일 동안 빠짐없이 법회를 펼치는 백고좌법회는 웬만한 원력으로는 해내기 힘든 불사입니다. 그런 법회를 법왕사에서는 매년 2회씩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으니 그 원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백고좌법회는 무엇인가요? 백고좌법회는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에 의한 법회로, 인왕반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국가와 중생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1백 불상, 1백 보살상, 1백 나한상을 모시고 칠부대중의 1백분의 법사를 청하여 법문을 들어야 한다. 이때 1백 송이의 꽃으로써 삼보전에 공양하며, 가르침을 독송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백고좌(百高座) 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백일 동안 매일 한분씩 1백인의 큰스님을 모셔서 설법케 하는 법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613년 신라 진평왕 때에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 들어 설법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백고좌법회는 불법에 의지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국심의 종교적 발원이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국불교는 ‘호국불교’였다는 이론이 있어왔습니다. 전형적인 호국불교의 특징은 신라의 법흥왕에 이은 진흥왕이 왕권확립과 국토확장에 힘쓰면서 불교의 국가종교화 운동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정책적인 결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 통일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승려로서 세속오계의 사회이념을 표방한 원광법사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고려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국교의 지위까지 얻게 되면서 태조 왕건이 자손들에게 남긴 유훈, 〈훈요십조〉 제 1조에서 나타나듯이, "고려의 대업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호에 힘입은 것이므로 선·교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보내 분향 수도하게 할 지어다."라는 메시지에서도 고려불교가 호국불교의 숭봉이념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고려 팔만대장경은 불경의 간행을 통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구궁의 이념으로 불교가 작용하였습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송유역불정책에 의해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대사 휴정과 그의 제자인 사명대사 유정, 영규 대사 등이 주축이 되어 승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고 국난 극복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승병활동이야

말로 불교의 호국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승병은 정묘, 병자호란에서도 일어나 활약하여 그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불교가 항일구국 운동에 앞장서면서 호국불교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으로 대표되는 불교계 인사들은 한일합방의 현실에서 일본의 정치적 간섭과 일본불교의 영향을 배척하고 조선 불교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진력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구국투쟁이 대열에 떨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법왕사에서 백고좌법회를 봉행하는 취지도 바로 이 호국불교의 전통에 이어져 있습니다.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국난극복을 위한’이란 타이틀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내외 정세가 예측불허의 안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합니다. 남북관계, 미북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대일본 관계등 어느 것 하나 원만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는 불보살님의 가호 아래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불심과 원력을 되새겨 국난극복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빠알리 자료에 근거한 고따마 부처님 전생 십바라밀 이야기 : 진실바라밀-2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 연재글(제46편)에서는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 전생의 한때에 ‘매추리’ [vattakā]로 태어났을 때 법의 힘을 생각하고, 과거 붓다들을 기억한 후, ‘진실선언’ (sacca-kiriya)을 함으로써 불길을 물리치고 살아날 수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도 ‘진실바라밀’ [sacca-pārami]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의 하나를 살펴보겠다. 우리의 고따마 붓다께서 현겁전생의 한때에 ‘물고기 왕’ [maccharāja]로 태어났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자신이 살던 연못의 물이 마르게 된다. 이 때 자신의 동족인 다른 물고기들이 고통을 당하자, 자신은 ‘물고기로 태어났지만,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라는 진실선언을 하면서, 비의 신인 ‘뽀준나’ [pajjunna]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항의하듯 요청한다. 그러자 실제로 비가 내려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따까 주석서에 나오는 배경과 전생바라밀행장의 원문 계송과 그 주석서등을 참고하여 보살이 과거생에 ‘진실 바라밀’을 실천한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자따까(Jātaka)와 전생바라밀행장 (Cariyā-piṭaka)] ¹⁾

1. ‘물고기 자따까’의 주석서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 ²⁾

스승[붓다]께서 제따와나[기원정사]에 머물면서 자신이 비를 오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한 때 꼬살라국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곡물이 시들고, 여기 저기 여러 곳

에서 저수지, 연못, 호수 등이 말라 갔다. 그리고 제따와나 성문 요새의 근방에 있는 제따와나 연못 또한 물이 단절되었다. 그러자 [연못 바닥] 진흙 속을 들어가서 누워있던 물고기와 민물 거북이들을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날카로운 창끝 같은 부리에 의해 [그들을] 죽인 후, 꼬집어 내어 흔들어 가며 먹는다.

스승[붓다]께서는 물고기와 민물 거북이들의 그 비참함을 보시고, 큰 연민심에 의해 심

장이 뛰어, “오늘 나에 의해 하늘이 비가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새벽에 몸의 일을 마치시고, 탁발할 시간을 고려한 후, 대비구 상가에 둘러싸여 붓다의 단아함을 갖춘 채 사위성으로 탁발하기 위해 들어가셨다. 공양 후, 탁발에서 돌아오면서 사위성으로부터 정사로 가는 도중에 제따와나[기원정사] 연못의 계단에 선 후, 아난다 테라에게 말했다 : “아난다여, 목욕용 가사천을 가져와라. 나는 제따와나[기원정사]의 연못에서 목욕을 해야겠다.” 라고,

[그러자 아난다 테라가] “존자시여, 제따와나 연못의 물이 단절되었고, 진흙 정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붓대] “아난다여, 붓다의 힘은 위대하다. 너는 목욕용 가사천을 가져와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난다 테라는 [그것을] 가져와서 주었다.

스승[붓대]께서는 한 쪽 끝으로 목욕용 가사천을 입으시고, 다른 한 쪽 끝으로 몸을 감싼 후, “나는 제따와나 연못에서 목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단에 섰다.

바로 그 순간에 제석천의 왕좌의 돌자리가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 그 [제석천]은, “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곰곰히 생각한 후, 그 이유를 알았다. 그리고 비구름의 신을 부르게 한 후, “그대여, 스승[붓대]께서 “나는 제따와나 연못에서 목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근처 계단에 서 계신다. 신속히 전 꼬살라국에 하나의 구름을 만들어 비가 오게 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 [비구름 신]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하나의 비구름을 [몸에] 장착하고, 다른 하나를 몸에 감싸고, 구름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쪽 세계를 향하여 뛰어갔다. 그는 동쪽의 한 곳에서 도리깨질 마당 정도 크기의 하나의 구름덩이를 일으킨 후, 백개 천개의 구름덩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 아래쪽에 놓여진 물통에 의해 비를 뿌리며, 온 꼬살라국을 홍수진 것처럼 잠나게 했다. 비는 끊어지지 않고 내려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제따와나 연못을 채웠으며, 근처 계단에 이르러서야 물이 멈췄다.

스승[붓대]께서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신 후, 잘 염색된 두겹의 가사를 입고, 몸의 끈을 맨 후, 선서의 대가사를 한쪽에 걸쳤다. 그리고 비

1) 여기의 원문자료는 6차 결집본의 로마자 온라인 출판본을 그 근거로 한다: CST4: [KN-Cp.3:10(maccharāja-cariyā); KN-Jā1(ekaka-np), n.75(maccha-jā)]. 그리고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혼용한다. 주석서[KN-Cp-atk-nidānakathā]에 의하면 이 ‘전생바라밀행장(Cariyā-piṭaka)’은 붓대께서 정각 후 최초로 자신의 고향인 까뻬라와투를 방문할 때 ‘반안나무숲(nigrodha-āraṃa)’에서 이중신통을 보인 후 석가족을 위해 ‘불충성경’을 설하고, 이어서 사리불존자가, ‘붓다가 되는 실천행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이에 답하기 위해 설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 ‘물고기’의 진실바라밀에 대한 배경이야기는 자따까의 주석서[KN-Jā1(ekaka-np), n.75(maccha-jā)-atk]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전생바라밀행장의 주석서[KN-Cp.3:10(maccharāja-cariyā)-atk]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언급한다.

구상가에 둘러싸여 간 후, 여래향실에서 지정된 붓다의 자리에 앉아 비구상가에 의한 의무를 보이셨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니보석의 계단에 서서 비구상가를 위해 충고를 하시고, 자극을 주신 후, 여래향실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런데] 저녁에 담마홀-설법전에 모여있는 비구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일어났대] : “벗들이여, 십력붓다의 인욕-자애-연민의 성취를 보아라. 많은 곡물이 시들고, 수많은 호수가 마르고, 물고기와 만물 거북이들이 큰 고통을 겪을 때, [붓다께서는] 동정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목욕용 가사천을 입고, 제따와나 연못 근처 계단에 선 후, 즉각적으로 전 꼬살라국을 마치 큰 홍수에 잠긴 것처럼 비를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 후, 정사에 들어가셨다.” 라는 말이 계속되었다.

그 때 [붓다께서] 여래향실에서 나온 후, 설법전에 와서,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말을 하기위해 모여있는가?” 라고 물었다. [비구들이]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붓다께서는] “비구들이여, 여래는 단지 지금만 많은 사람들이 피로해 할 때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축생계에 태어나서 물고기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한 비를 내리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후, 과거 [이야기]를 가져왔다.

과거에 바로 이 꼬살라국, 이 사위성, 바로 이 제따와나의 연못이 있는 곳에 덩굴식물 숲

에 둘러싸인 어떤 산 계곡에 형성된 못이 있었다.

그 때 보살은 물고기 세계에 태어난 후, 물고기 무리에 둘러싸여 거기에서 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그 때도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곡물이 시들고, 못과 호수, 산 계곡 못 등에서 물이 단절되었다. 그 결과 물고기와 만물 거북이들이 진흙 속으로 들어갔다. 또한 이 산 계곡 못에 있는 물고기와 만물 거북이들도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저기에 숨었다. 그 때 까마귀들이 [그들을] 부리로 찌는 후, 꼬집어 내어 먹어 치웠다.

[물고기] 보살은 친척 무리의 그 비참함을 본 후, “저들의 이 고통을 나를 제외하고 다른 이가 해방시킬 수 없다. 진실선언(sacca-kiriya)을 한 후, 비를 내리게 하여 친척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검은색 진흙을 두 갈래로 갈라서 나왔다. 검은 안자나 나무의 심재 색깔인 큰 물고기 [보살]은 맑은 붉은색 루비보석 같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의 신]뻗준나 신들의 왕[pajjunna-devarāja]에게 소리를 질렀다:

“오 뻗준나여, 나는 친척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피로할 정도로 계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동족들을 잡아먹는 곳에 태어났지만, 심지어 쌀알 크기의 물고기도 예전에 먹지 않았고, 나에 의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진실에 의해 비를 내리시고, 나의 친족 무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

소서.”라고 이렇게 말 한 후, [물고기 보살인] 시중드는 소년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뺏준나 신의 왕에게 말하며, 이 계승을 읊었다:

75. [자따까 원문계승]

뺏준나여, 천둥을 쳐서 까마귀의 숨은 보물을 파괴하소서; 까마귀를 슬픔으로 요리하시고, 나를 슬픔에서 해방시키소서.

이와 같이 [물고기] 보살은 시중드는 소년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뺏준나에게 말을 건 후, 온 꼬살라국에 큰 비가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목숨을 마치고 업에 따라 [세상을] 떠났다.

스승[붓대]께서는, “비구들이여, 여래는 단지 지금만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물고기 세계에 태어났을 때도 또한 비를 내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후, 이 법문을 가져와 결론을 내렸고, 자따까와 연결지어 말씀하였다: “그 때 물고기 무리는 붓대를 따르는 모임이었다. 뺏준나 신의 왕은 아난다였고, 물고기왕은 바로 나였다.”라고,

[자따까 주석서 배경 이야기 끝]

2. ‘물고기 왕’의 [진실 바라밀]³⁾

[83] 다시 다른 때에, [보살이] 큰 호수에서 물고기였을 때이다; 그 때 태양열의 열기 때문에 호수의 물이 말라버렸다.

[84] 그러자 까마귀, 독수리, 왜가리, 매들이; 밤낮으로 가까이 와서 물고기들을 먹어치운

다.

[85] 그 때, 친척들과 함께 억압된 채, 나는 거기에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친척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인가?’라고,

[86] 법다운 이득을 생각한 후, 진실한 의지처를 보았다; 진리에 기반하여, 친척들의 그 더 이상의 파괴됨을 막았다.

[87] 의식적으로 법을 기억한 후, 최고의 진리를 생각하며;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진실선언(sacca-kiriya)’을 하였다.

[88] 나 자신을 기억해보고, 내가 분별의 나이에 이른 때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의 생명이라도 해친 것을 알지 못한다.

[89] ‘이 진실의 말에 의해, [비의 신] 뺏준나여, 비를 내리소서; [비의 신] 뺏준나여, 천둥을 쳐서 까마귀의 숨겨진 보물을 파괴하소서; 까마귀를 슬픔으로 요리하시고, 물고기들을 슬픔에서 해방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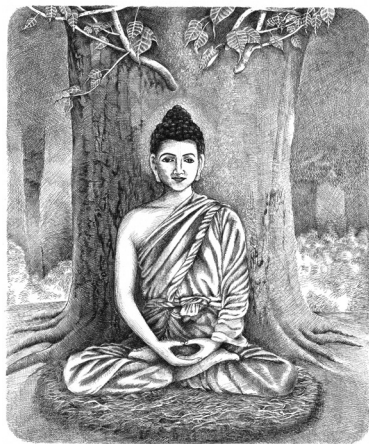
[90] 뛰어난 진실[선언]이 함께 만들어지자, [비의 신] 뺏준나는 천둥을 쳤고; 그 때 비가 내려서,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를 [물로] 꽉 채웠다.

[91] 이와 같이 뛰어난 진실[선언]인 최고의 노력을 한 후; 진실의 열기와 힘에 의존하여, 큰 구름이 비를 내리게 하였다; 진실에 의해 나와 같은 이는 있지 않다. 이것이 나의 진실완성 [바라밀]이다.

[끝]

3) 여기의 계승은 ‘전생바라밀행장’의 원문에 근거한 번역이다.[KN-Cp.3:10(maccharāja-cariyā)].

선(禪)이란 무엇인가(1)



참선수행은 현대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손꼽힌다. 부처님 재세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명상에서 출발한 선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리잡아 특별히 선(禪)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아 1천년 이상 중국과 한국 및 일본등 동아시아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참선법에도 간화선, 묵조선등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근본은 복잡한 교설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참구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자리에 오른다는 원리만큼은 동일하다. 즉, 직지인심 건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교외별전(敎外別傳)·불립문자(不立文字)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새로운 불교의 원리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에 선에 대해 알아본다.

삶에는 언제나 '왜'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방법론이 늘 문제가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방법론의 완성에는 '왜' 사는가라는 의문의 해답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왜'와 '어떻게'는 낮과 밤, 겉과 안처럼 상의 상관적이고 부즉불리(不即不離)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왜 사는가라는 의문에는 관심이 없다. 고통과 갈등은 여기서부터 쏟아

져 나온다.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없다. 문제의 제기, 이것이야말로 자기자신의 탐구를 시작하는 신호의 등불이다.

아리아인들이 인터스강 유역으로 이동할 무렵, 그들은 우주질서와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지니고 있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해 가는가?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특별한 지적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일이긴 했지

만, 우주생성과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이 물음은 수천년을 걸쳐서 지속적이고 풍부하게 추구되었다. 말과 생각을 기록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더욱 열정적으로 추구되어 방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들이 이 의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기록했던 단어는 Dhyana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였다.

이 Dhyana라고 하는 말이 지닌 뜻은 아리아인들이 우주와 인생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근원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끈질기고 줄기찬 사유활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불교에서는 그대로 전용(轉用)되었는데, samadhi와 합성어인 선정(禪定)이 많이 쓰인다. 중국의 역경승들은 선나(禪那)로 음역해서 줄임 말인 선(禪)으로 썼고, 뜻으로는 정려(靜慮) 또는 사유수(思惟修)로 번역했다.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이 발표되기 이전,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이 근본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의타적 신앙에 의지하고 있었다. 특정한 신을 섬기거나 태양, 별, 산, 강, 불, 희생 등에 의한 제사의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제사는 승려계급의 특권 중의 하나였다. 부처님은 제사의식으로 안에서 타오르는 의문의 불이 꺼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출가를 단행한 후 당시 수행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스승을 만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본질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는 찾아야 할 더 큰 스승이 없다는 결론

을 얻었다. 이제는 스스로 그 의문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기 자신이 일으킨 문제였으므로 궁극에 가서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했다.

그는 결가부좌를 하고 Dhyana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일주일이지났을 때 더 이상 망설임과 의혹이 필요 없는 세계가 열렸다. 정각(正覺)을 이룬 것이었다. 기록에 따라 '일주일의 명상', '보리수 아래서의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출가해서 6년, 그는 드디어 그 의문을 자기 자신이 풀어낸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해탈(解脫)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 자신이 거친 Dhyana에 대한 체험활동, 즉 삶에 대한 의문 → 출가 → 비범한 스승들과의 교류 → 본질문제의 해답에 대한 실패 → 혼자만의 명상 → 최후에 얻어진 깨달





음 등의 일련의 방식은 산만했던 Dhyana에 대한 고찰방법이 하나로 통폐합된 결과를 의미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문제의 의문을 푸는 방법으로 제사나 희생 또는 승려들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Dhyana를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발전의 의무에서 본다면 부처님의 이러한 방법은 ‘사고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것이었다. 우주의 생성과 삶에 대한 의문의 해결이 자기 자신으로 집약되고, 이미 자기 자신 안에 그 해결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도록 충격적이고 신선한 것이었다.

삶에 대한 의문의 해결이 자기 내부로 향한 것은 집중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몸의 구조에 대한 고찰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수행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방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놀랍고 활기에 찬 일이기

도 하다.

세계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 일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육체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의 용량에 따라 정신의 무게가 좌우될 일이었다. 세계와 세계정신의 관계는 육체와 정신과의 관계와 같다.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계를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작은 육체가 정작 세계의 신비를 푸는 열쇠라고 말한 사람은 혼치 않다. 최후의 의지처는 자기자신이라고 말한 부처님의 흔들릴 수 없는 유산의 의미는 비로소 선을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선을 신비주의적 경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신비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고 사실에 가득찬 세계가 바로 선의 세계이다.

선은 결코 사고의 결과를 일확천금으로 만

드는 요술상자가 아니다. 복권당첨의 행운이나 영웅주의는 선의 세계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굉장한 인내력과 필생에 맞먹는 시간,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향해가는 자기성찰을 통해 조금씩 ‘지고 한 통찰력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초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 또 한 걸음 옮기면 한 걸음 가까워지고 두 걸음 걸으면 두 걸음 가까워진다. 선정의 결과는 노력이 전부다. 깨달음은 갑자기 닥쳐오지만, 씨를 심지 않으며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은 우선 연기의 법을 아는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원인과 결과(因緣法), 관계의 생성(緣生法)에 대해 말하겠다. 원인과 관계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위로 발전하고 그 발전의 속도에 의미가 부여되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집합되는 것이다. 관계의 생성이란 무엇인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위로의 발전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 법칙은 존재한다. 그것은 법의 존재요, 법의 세계다. 나는 이 법을 깨달았을 뿐이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어 눈이 열려 발전하도록 할뿐이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위로 발전하고 그리하여 태어남의 관계가 되고 늙고 죽어간다.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며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있다. 이 모든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며 필연적인 법칙이다. 모든 것은 연기(緣起)를 따른다. 이것이 관계생성의 법칙이다.” <잡아함.296>

이 연기의 법을 읽거나 듣거나 이해하는 데서부터 불교적 사고는 시작된다. 업(Karma)과 윤회(Samara)는 불교 이전에도 나타나지만 연기는 부처님 출현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 문헌학적 견해다. 부처님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기는 법은 불교가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상은 끝없다. 인(因)과 연(緣)이 현상을 만들어 낸다. 끝없는 생성이다. 끝없는 인과 끝없는 연이 현상을 만들어 냈으니 어찌 끝이 있겠는가?” <잡아함.11>

“세존이시여,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잡아함.296>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 법은 존재한다. 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안 것뿐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위로 발전하는 관계로부터 괴로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 또한 불확실한 상태와 소멸이 행위의 소멸로 발전하여 쌓였던 괴로움이 소멸되어 가는 것과 같다.”

<계속>

경자년에 알아보는 십간 십이지(十干 十二支) - 2

우리나라에서 연도를 말할 때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를 사용하는데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는 다음과 같다. 십간 -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십이지 -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이다.

2020년 올해는 경자년으로 새로 쥐띠부터 시작하는 해이다. 앞으로 차례대로 12년 동안 십이지의 순서에 따라 순환하게 되는데 이에 십간과 십이지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본다.

축(丑) - 소

소띠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한해이다. 소띠 해는 을축(乙丑)→정축(丁丑)→신축(辛丑)→계축(癸丑)의 순으로 육십갑자에서 순환한다. 십이지의 소(丑)는 방향으로는 동북,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에서 3시, 달로는 음력 12월을 지키는 방향신(方向神)이자 시간신(時間神)이다. 여기에 소를 배정한 것은 소의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서 음(陰)을 상징한다는 것과 그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서, 씨앗이 땅속에서 싹터 봄을 기다리는 모양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丑)는 참고 복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 찬 기운이 스스로 굴복하기 시작한 것을 상징한다. 소는 둔한 것 같으면서도 신나는 일에는 '쇠뿔도 단김에 빼듯' 침식을 잊고 해내지 않으면 몸살을 앓는 것도 소띠들의 공통점이다. 한번 마음먹었다 하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해내는 사람 역시 소띠이다. 그러나 한번 화가 났다 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고 한바탕 떠들썩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강자에 강해 강자에게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약자에게는 예상외로 인정과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인(寅) - 범

범띠는 대체로 일찍 성숙하여 만인을 통솔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다. 출세도 빠르고 위엄도 있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책임감이 많다. 범띠생은 충동성과 원기왕성함을 갖고 있다. 설 새 없이 마구 설쳐대기를 좋아하는 범띠생은 보통 참을성 없이 행동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그는 머뭇거리거나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는 남을 믿거나 자기 감정을 가리앉히는 일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매사 서두는 경향이 있어 속전속결하다 보니 사업에 실패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성미가 급한 만큼 진지하고 다정다감하



고 관대하기도 하다. 의협심이 많아서 자신은 돌보지 않아도 남의 일은 도와주고자 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이 따라도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기가 꺾인 범띠생에는 말만이 아닌 진정한 동정이 필요하다. 그를 위로하는데 인색하게 굴지 마라. 상황이 뒤바뀐다면 그는 당신에게 두 배로 보답할 것이다.

묘(卯) - 토끼

옛이야기나 동요, 민화, 동시 등에서 토끼는 조그마하고 귀여운 생김새, 놀란 듯한 표정에서 약하고 선한 동물,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에서 영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옛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

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理想世界)를 꿈꾸어 왔다. 토끼는 장수의 상징(an emblem of longevity)이며, 토끼는 달의 정령(the vital essence of the MOON)이다. 여성을 대표하는 산신이자 산신을 보조하는 산신령을 뜻하기도 한다. 토끼는 원숭이의 궁둥이를 싫어한다. 자신의 눈색깔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묘신원진(卯申怨嗔)이 된 이유이다. 자고로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원숭이가 사는 곳에 토끼가 같이 사는 법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자연의 이치가 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토끼는 돼지의 분비물 냄새와 힘을 부러

워하고, 양의 초연한 청승스러움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여 해묘미삼합(亥卯未三合)이 되는 것이다. 돼지 코와 양의 코를 반반씩 닮은 것이 토끼의 코이기도 하다. 성격 면에서도 돼지의 우묵함과 양 뿔의 건방진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진(辰) - 용

龍은 봉황, 기린, 거북과 함께 ‘四靈’의 하나로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어떤 동물보다도 용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의 동물이다. 용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를 모두 갖추며 동시에 무궁무진한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구조 전반에 걸쳐 깊이 자리하면서 수많



은 민속과 민간신앙, 설화, 사상, 미술품, 각종 지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라인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護國龍)을 탄생시켜, 우리의 사상사에서 빛나는 호국정신의 극치를 이루기도 하였다.

용의 해에 출생한 용띠 사람들은 건강하고 정력적이며 정직하고 용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신뢰감이 두터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돈을 꿈꾼다던가 아침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용띠태생은 화를 잘 내고, 흥분을 잘하며, 고집이 세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며 다소 과격한 성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사(巳) - 뱀

뱀은 12지의 여섯 번째 동물로서 시각으로는 오전 9시에서 11시, 방향으로는 남남동, 달로는 음력 4월에 해당한다. 뱀은 열두 띠 동물 중에서도 특히 지혜와 부활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알아서 겨울잠을 잘 줄 알고 허물을 벗음으로써 재생을 시도하는 뱀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이처럼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상징이자, 재생의 동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뱀은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온 것 같다. 뱀이 지닌 영생의 의미는 고대 유물의 장식품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재생, 허물을 벗는 환생,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불사의 의미

때문에 뱀은 유물의 소재로 널리 쓰였다. 알이나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주 쓰였다는 점도 짐작해볼 수 있다.

뱀에 관한 설화로는 신라시조 박혁거세 신화가 대표적이다. 혁거세왕이 하나를 다스린 지 62년 만에 하늘로 올라가더니 7일 만에 시체가 다섯으로 땅에 떨어지면서 흩어졌는데 이를 신라 사람들이 이를 모아서 묻으려 하니 큰 뱀이 쫓아와 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오체를 각각 장사를 지냈으니, 그 자리를 오룡 또는 사룡이라 일컫는다. 혁거세의 시신을 나누어 묻은 것은 풍요의 상징이며 뱀은 풍요를 분배하는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노년기 눈건강 지키는 법... 안과 정기검진 생활화 '최고야!'



도움말 |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매년 11월 11일은 눈의 날이다. 대한안과학회에서 지정한 '눈의 날'은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관심을 독려하고자 대한안과학회에서 지정한 날이다.

올해 안과학회에서 내세운 눈 건강 슬로건은 '근시와의 전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를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시력저하의 이유로 생각하고 있지만, WHO에도 등록된 질병이다. 근시는 차후 실명을 야기하는 망막질환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누네안과병원 권오웅, 김순현, 유용성 원장단의 도움말로 망막질환에 의한 실명위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노인 실명 1위, 황반변성

실명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대 망막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박리가 있다. 3대 실명질환 모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초기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눈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실명 직전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래 증상과 치료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조기 발견과 그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망막관련 안질환 중에서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황반변성은 망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황반에 변

성이 오는 질환을 일컫는다. 황반은 작지만 민감한 부위로 사물의 중심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물을 인식해 색을 구별하는 등 시력의 90%를 담당한다. 망막에 나이가 들면서 시세포가 밀집된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인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고 여기에서 누출된 혈액이나 액체가 황반을 손상시켜 시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질환이다.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인 '노화'

황반변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노화이다. 나이가 들면서 황반의 세포와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망막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망막 아래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원래 없던 혈관이 새로 생성되는 등(신생혈관) 황반 부위에 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지방식 등

서구식 식생활이 보편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고지혈증 등 서구형 혈관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질환은 황반 부위의 모세혈관을 막아서 황반변성을 가중시킨다.

이 병은 60세가 넘으면서 늘어나고, 젊은 사람에게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 외에 황반변성 발병을 가져오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보다 황반변성 발병 가능성이 2~2.4배 높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점으로 볼 때, 향후 30~40년 뒤에는 여성 황반변성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황반변성은 과거 흡연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연해도 발병 위험은 수년 이상 높게 유지된다. 따라서, 황반변성 예방을 위해 서라도 남녀 모두 담배는 당장 끊는 게 좋다.

망막장애를 야기하는 고도근시

황반변성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시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건성에서 시작해 습성으로 진행하며, 습성 황반변성이 실명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건성황반변성은 병이 생기되 황반 부위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건성황반변성은 본격적인 치료단계가 아니며 병의 진행이 악화되어 습성황반변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건성황반변성 환자 10명 중 1~2명 정도는 습성황반변성으로 진행된다. 카메라 필름

이 젖으면 사진이 찍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성 단계가 되면 황반 주위에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이 생기는데, 이 혈관은 물이 새는 파이프처럼 혈액이 샌다. 새어 나온 혈액은 황반을 적시면서 시세포를 손상시키며, 마른 뒤에는 황반 주변에 딱지처럼 앉아서 시야를 가린다. 한쪽 눈에 습성황반변성이 생긴 환자의 30~40%는 5년 안에 반대쪽 눈에도 생긴다. 습성황반변성은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력 소실을 가져온다.

습성황반변성이 오면 바둑판이나 한옥창틀 같은 격자무늬가 가운데 부분부터 휘어져 보인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안과에 가서 망막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습성황반변성 환자가 안저검사를 받으면 황반 부위에 신생혈관과 함께 출혈이나 물집 등이 발견된다.

치료를 통해 늦출 수 있다

황반변성 치료방법에는 비주사인을 이용한 특수레이저치료와 항체주사치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특수레이저치료가 먼저 일반화되었지만, 항체주사치료가 나온 뒤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항체주사치료가 보다 간단하고 부작용이 더 적다는 이유다. 따라서 우선은 항체주사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없는 경우 특수레이저치료를 하여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항체주사 치료법은 VEGF를 억제하는 항체를 눈동자 안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다. 황반 주위의 신생혈

관 생성은 VEGF(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라는 물질이 촉진하는데, 황반변성 항체주사는 이러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병의 진행이 억제되는 동시에 일부 환자에게는 시력을 다소 회복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항체주사약은 루센티스와 아바스틴 그리고 아이리아까지 세 가지가 있다. 루센티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처음부터 황반변성 치료제로 승인 받은 약품이다. 아바스틴은 원래 항암제로 개발됐는데 황반변성에도 효과가 입증돼 안구 주사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2013년 3월 습성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 승인받은 아이리아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항체 주사는 주사 후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어서 1개월에서 수개월 단위로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한다. 평균 2년에 10회 이상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습성황반변성에 흔히 쓰는 치료법이 광역학치료이다. 비주다인이라는 빛에 반응하는 특수한 물질을 팔에 정맥주사로 놓으면 이 물질은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다가 황반 부위의 신생혈관만 염색시킨다. 이어 특수한 레이저를 쏘면 정상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염색된 신생혈관 조직만 파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광역학치료를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게는 ‘결절맥락막혈관병증’이라는 형태의 습성황반변성이 서양인에 비해 유독 많은데, 광역학치료는 이런 형태의 습성황반변

성에 대한 초기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학치료의 부작용으로 망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망막하 출혈 발생 시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청 허가로 현재 임상실험 중에 있다.

누네안과병원 권오웅 원장은 “황반변성이 무서운 실명질환인 이유는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며, “단순히 사물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노안증상으로 착각해 병을 키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반변성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황반의 시세포들의 손상이 발생하여 사물이 찌그러지거나 휘어져 보이며 한 쪽 눈에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 45%가량 5년 이내 다른 쪽 눈까지 발병하게 되므로 병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필요하다”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망막장애를 야기하는 고도근시

두 번째 대표적인 망막관련 실명질환은 당뇨병망막병증으로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만성질환인 당뇨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이다. 당뇨병망막병증은 눈의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오랜 기간 높은 당이 포함된 피가 흘러 망막의 혈관과 조직이 손상 받아 생긴다. 보통 당뇨진단을 받은 지 10년 후부터 발생하지만,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만에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혈당관리를 철저히 해도 당뇨병 유발 후 2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당뇨망막병증이 나타난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당뇨망막병증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신생혈관이 없는 비증식당뇨망막병증과 망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구분한다.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망막미세혈관의 파괴로 나타나는데 혈관의 일부가 막히거나 혈관 벽이 약해져서 나오는 동맥류가 발생한다. 이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며,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망막의 핵심 부위인 황반에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면 시력이 나빠지게 된다. 그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특히 주변이 어두운 경우 물체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은 당뇨망막병증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서서히 진행되어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악화된다.

증식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혈관이 약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내는 단계이다.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의 100%가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는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병이 진행되기도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혈관은 앞서 설명했듯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출혈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출혈은 시력을 떨어지게 만든다. 망막 내 출혈은 자연적으로 흡수되긴 하지

만 병이 진행될수록 주기적으로 출혈이 반복되면서 출혈로 인한 시력회복이 느려지고 신생혈관 주변에 흉터와 비슷한 조직이 생기는데, 다른 주변 조직을 잡아당겨 망막박리와 재 출혈이 반복되고, 결국엔 실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완치는 아니지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

당뇨망막증의 치료는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병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체주사치료, 레이저치료 그리고 유리체절제술 이렇게 세가지 치료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항체주사치료다. 부분 마취로 시행되어 5분이면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짧은 치료 시간과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도 쉽게 치료 가능하다. 그리고 더 이상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선호한다.



법왕사 소식

정월대보름 삼재풀이 및 달집태우기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2020년 경자년의 입춘일인 2월 4일부터 정월 대보름인 2월 8일까지 삼재기도를 봉행하고 대보름 저녁에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갖습니다. 기도 대상은 올해 농삼재에 드는 소, 뱀, 닭띠 소생 불자들이며 이 분들은 1인 쌀 3되3홉, 동전 나이수대로, 묵은 숙웃 1벌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도비는 1인 3만원입니다.

한편 대보름 법회에서는 차량 무사고 기원 법회도 함께 회향합니다.

정월 정초 7일간 기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27일(음력 1월 3일)부터 2월 2일(음력 1월 9일)까지 7일간 정초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신행생활을 다짐하고 불공을 올리는 첫 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다라니 108독 기도 대법회 봉행

다라니 108독기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다라니는 염불수행의 주요한 방편으로 다라니를 읽으면 간경이나 참선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 대법회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독하는 소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는 매월 셋째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매월 음력 보름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적광전에서 각각 봉행합니다.

제40회 백고좌법회 봉행중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9일 제40회 백고좌법회를 입재하여 4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봉행합니다. 입재 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인 일진 스님께서서 법문하셨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설법회입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회로 지난 20여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해왔으며 때로는 연 2회를 봉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회향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신 암도스님의 불명 및 보살게 수계법회가 열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초 기도 후 향일암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봉행하는 정초 7일간 기도법회를 회향하고 2월 3일 여수 향일암을 참배하면서 선상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향일암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의 하나로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방생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입춘 삼재기도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31일, 2020년 경자년 입춘을 앞두고 올해 농삼재에 드는 소, 뱀, 닭띠들의 액난 소멸을 위한 삼재기도를 5일간 봉행하였습니다. 올해 입춘은 2월 4일 18시 03분으로 이날 회향 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5일간의 기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글 대장경 독송기도 봉행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대적광전에서 한글 대장경 독송기도를 봉행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경은 염불, 참선과 함께 크나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편이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 동참하시어 불교 공부와 함께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설날 합동차례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25일 경자년 설날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설날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인데 법왕사에 위패를 모신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무료급식 동참 및 후원 모집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무료급식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동참 방법은 무료급식 울력에 동참하셔도 되고 후원금을 내셔도 됩니다. 봉사활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급식 시간에 공양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 대구은행 505-10-203686-3 자비회로 하셔도 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 예술단 창단 및 단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건전한 여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는 법왕예술단을 창단하고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찬불가, 가요, 각종 악기(서양악기, 국악기), 무용이며 어린이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을 지도할 총감독은 이달철 선생님이로 계명대 작곡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상임고문과 법왕사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연등 접수중

법왕사에서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법당에 모실 연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년 사업등, 인등, 영가등, 가족등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등공양은 불전에 올리는 공양 가운데서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였습니다. 모쪼록 많이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크나큰 가피 입으시기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해오름 어린이집 개원 및 원아모집

법왕사 부설 해오름 어린이집이 2020년 3월에 개원합니다.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해오름 어린이집은 109평의 대지 위에 건평 178.5평,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오름 어린이집은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해오름 마을에 3천여평의 체험학습장이 있으며 파동 법왕사 경내에도 다양한 체험학습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해오름 어린이집 주변은 안심습지를 비롯해 안심체육공원, 박주영 축구장 등 자연을 벗삼아 뛰어놀 수 있는 여건과 함께 4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하동 롯데마트와 다양한 상가, 병·의원 등 편의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한 환경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오름 어린이집은 2020년 3월에 정원 132명을 모집할 예정이니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해오름 어린이집 전경



1층 입구에서 바라본 로비 모습



아침 햇살



푸른하늘



은빛 바다



조리실



많은 샘물



고운 햇살



산새소리



아트실



도서실



3층 로비



하늘정원



실외 놀이터



실내 놀이터 겸 체육실



안심체육공원



박주영 축구장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다



법왕사 부설

해오름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법왕사 부설 해오름 어린이집에서 2020년 원아를 모집합니다.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해오름 어린이집은 109평의 대지 위에 건평 178.5평, 지상 4층 규모로 2020년 3월에 개원 예정이며 모집정원은 132명입니다. 해오름 어린이집은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해오름 마을 체험학습장 3천여평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주변으로는 율하동의 박주영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풍부하여 어린이 교육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 만 0세~7세
모집기간 : 2020년 2월부터
교육시간 : 오전 7:30 ~ 오후 7:30
프로그램

- **표준(놀이)교육과정 중심운영**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의 균형있는 영·유아 교육
- **다양한 체험과 특성화 교육**
유아음악, 유아체육, 퍼포먼스미술, 재미있는 외국어 경험 등 기타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교육

교육여건

맛별이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반 운영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급식
자연환경이 수려한 주변 여건
박주영 축구장 등 체험 및 견학시설 풍부

교육상담 053-965-7722

※ 시내 전역 등·하원 차량 운행

사보 도움주신 분

김필수 2만원 백장자 2만원 박상태 2만원
 혜능스님 400부 최홍규 20만원 노기주 100부
 박정숙 200부 자비회 200부 박만호 2만원
 정명숙 2만원 류우희 100부 권오삼 1000부
 권혜정 100부 무애심 300부 권지현 50부
 이석구어르신보호자 100부 백법성행 100부
 최양이 해오름요양원 220부
 해오름요양원 직원일동 260부

공양올리신 분

◎물품보시 시주 공덕주

권숙자(승복) 산신회 일동(승복)
 권기욱(승복) 권경오(사이다 1박스)
 김종황(음료수 10박스)

◎대중공양 시주 공덕주

박경민 고재욱(떡국 떡) 장세인(버섯)

◎공양미 시주 공덕주

권영제 권지혜 박서빈 이세영 손대호
 박성률 김근태 이미희 신병기 최재훈
 권상혁 성재윤 김세현 이현우 신종수
 도형석 오복희 김기춘 여택동 여영동
 신용홍 권현구 전삼수 윤성진 김성훈
 이순ail 김순자 양혜진 윤재웅 김세활
 김종황 강정선

◎과일공양 시주 공덕주

양혜진 정근순 권태일 김창근 권상태
 박경영 이복희 양봉률 김창용
 세광하이테크(초하루 과일공양 일체)

◎떡공양 시주 공덕주

이화꽃집

◎떡공양 시주 공덕주

박서빈 이광진 박분남 양영갑 양지영
 김봉원 전하현 이종량
 신지원 장병근 박애란 전진양
 제갈욱 차윤길 이종량 양봉훈
 박근수 류윤만 김상한 고재욱
 구실상화 亡박재완

불사 올리신 분

◎1년등 올리신 분

75 김희동	76 홍재호	77 최옥선
78 권택진	79 장병근	80 이제문
81 권범수	82 조월포	83 하경순
84 박종연	85 우종원	86 김종열
87 김기석	88 박수영	89 심재용
90 최영근	91 이태희	92 정재훈
93 박영숙	94 손대천	95 송영철
96 엄준원	97 김의환	98 김채희
99 윤주연	100 전준환	101 이종량
102 권상태	103 최은녕	104 안병목
105 조준형	106 김태익	107 안재찬
108 신웅균	109 신현욱	110 신현섭
111 이현숙	112 박종철	113 박종민
114 류윤만	115 홍재호	116 김수남
117 배재훈	118 이상태	119 정종표
120 이지현	121 이상열	122 최영근
123 이상목	124 여정선	125 김판돈
126 김석원	127 정순덕	128 이종화
129 이병순	130 나영욱	131 박하섭
132 전삼수	133 최지예	134 이재준
135 김정현	136 한병덕	137 채미나
138 김종락	139 임재오	140 정창근
141 조영석	142 추순인	143 김상석
144 곽희순	145 김상원	146 최우영

147 김중환 148 이성락 149 김중태
150 류현필 151 이종석 152 장승환
153 장지흔 154 장지훈 155 배재호
156 한상각 157 한금복 158 김찬호
159 정동영 160 권병기 161 채금연
162 우영근 163 이현자 164 장정수
165 김경희 166 이우호 167 이주현
168 이정현 169 김정행 170 박정목
171 최말순 172 조성찬 173 김수용
174 장두욱 175 안중현 176 최인종
177 예진숙 178 박석홍 179 박춘복
180 최일근 181 김진호 182 류시환
183 백정석 184 박재술 185 전일주
186 송홍점 187 안주선 188 정규하

◎꽃등 올리신 분

3 이재학 6 박찬용 13 문국연
14 김봉원 15 전재술 16 김호연
17 정효교 18 박기성 19 이우영
21 신조순 22 박성률 23 김상수
24 정정교 25 이승재 26 신종호
27 박영승 28 김임태 29 조현갑
30 조민규 31 박근수 32 배해동
5 김홍재

◎영가등 올리신 분

9 최옥선 10 김상욱 11 하경순
12 박종연 13 우종원 14 박말순
15 김의환 16 김수남 17 이병순
18 홍원진 19 류현필 20 장정수
21 정점순 22 김수용

◎단청등 올리신 분

6 세광하이테크 7 청송약수삼계탕
8 지오씨앤아이 9 안진정밀
10 신지원 11 동호정밀

12 경북신경외과 13 신의내과
14 성재윤 15 대영공인중개사
16 세원산업 17 정원전설
18 금강철강 19 정안식
20 금건수 21 정일수산
22 신암수산 23 경희사랑한의원
24 경일신경과 내과 25 조병완 치과의원
26 국강국어 27 선재수학학원
28 수만수학학원 29 마루약국
30 정우유압 31 우성건설
32 창진중기 33 윤불련
34 최준영 35 청구도시락
36 다산미디어 37 태성스틸
38 남호진 39 천호물류
40 애플공인중개사

◎저금통 회향 시주 공덕주

안진미 손영숙

◎산신인등 올리신 분

25 김정호 141 송미숙 142 홍애지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88 김수경 89 김수윤 7 홍지민
8 홍채은 398 김태훈

◎범종불사 올리신 분

신경학 정현숙 신재민

◎대등 올리신 분

1 김순조

◎CMS시주 공덕주 (1월18일까지)

김경숙 9,000 만불전인등 오현규 10,000 오백나한
신정옥 20,000 분당인등 성점순 10,000 인등
장미야 4,000 인등 김달준 20,000 인등

김명선 25,000 인등	김재순 10,000 인등
한천숙 10,000 인등	정연이 8,000 인등
김성미 5,000 인등	서필희 10,000 한평불사
최진석 5,000 산신인등	강초희 20,000 인등
전성복 10,000 산신인등	홍경숙 10,000 인등
이점에 20,000 오백나한	정순희 20,000 인등
오지현 10,000 원불	신인숙 5,000 인등
현미숙 20,000 인등	김연자 10,000 인등
김성자 10,000 인등	손항숙 20,000 초하루축원
정재순 30,000 초하루	이호진 10,000 원불봉안
류윤희 15,000 인등	송순분 20,000 초하루기도
오창혁 10,000 인등	전재필 5,000 인등
심영선 15,000 인등	김옥자 10,000 원불
김수라 30,000 초하루	김성미 5,000 인등
사공순옥 30,000 초하루	장명희 5,000 산신인등
백승연 3,000 만불전인등	김관용 5,000 인등
김이규 6,000 대적광전인등	조희선 20,000 인등
김수남 3,000 인등	강유주 10,000 인등
김현숙 8,000 인등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한국식 영가님의 막재가 1월6일에 있었습니다
- 亡박영래 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8일에 있었습니다
- 亡박재상 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9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경생 영가님의 막재가 1월11일에 있었습니다
- 亡신광옥 영가님의 막재가 1월12일에 있었습니다
- 亡권선오 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13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종식 영가님의 초제가 1월18일에 있었습니다
- 亡김인조 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18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경택 영가님의 막재가 1월19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해석 영가님의 막재가 1월22일에 있었습니다
- 亡주성옥 영가님의 막재가 1월23일에 있었습니다
- 亡정윤식 영가님의 막재가 1월24일에 있었습니다
- 亡류현정 영가님의 기제사가 1월24일에 있었습니다
- 亡홍강년 영가님의 초제가 1월25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피경호 법우님의 장녀 연희양의 결혼식을 축하 드립니다

| 경자년 2020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서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가족등 - 10만원
영기등 - 5만원

문의 | 법왕사 053-766-3747

해오름 요양원 소식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회

오카리나 앙상블 봉사단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악기 소리에 즐거워하시고 웃으시며 좋은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항상 오셔서 공연해주시는 오카리나 앙상블 공연단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고리 던지기 놀이

2층 로비에 어르신들과 다함께 모여 고리던지기 놀이를 하며 어르신들끼리 누가 많이 고리에 던져서 거는지 게임도 해보고 사회복지사와 요양사님들도 같이 어울려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호자 간담회

해오름 요양원 침터에 보호자 가족여러분, 원장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님들과 다함께 모여 보호자님들의 소중한 질문과 해오름 요양원에 바라는 점 개선해야할 점 등을 귀기울여 들으며 하나하나 신중히 답변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보호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신잔치

1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윤봉한어르신, 정판임어르신, 나영연어르신, 백복순어르신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께서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케이크와 다과를 나누어 드시며 노래자랑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현준, 장윤규, 차원울, 전진우

| 단체 정기봉사자 | 동그라미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달성아리랑보존회(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앙상블공연단(공연활동), 일곱빛깔하모힐링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아코아모공연단(아코디언)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위미화 10,000	신구자 5,000	정시영 10,000
김수희 20,000	조영석 10,000	조규인 10,000
김옥경 20,000	김수라 10,000	사공관 20,000
이정자 20,000	최분규 10,000	채옥연 5,000
정인순 5,000	양나영 5,000	배수현 20,000
장시원 10,000	안명희 10,000	신돈식 10,000
양희숙 20,000	장우성 10,000	여택동 5,000
강병철 10,000	김정순 30,000	안경순 10,000
고재욱 20,000	김용섭 5,000	류윤만 10,000
이명숙 20,000	홍애분 10,000	이정옥 10,000
김만기 5,000	김숙희 10,000	정무시 10,000
안희선 10,000	이옥자 10,000	이임숙 20,000
이현옥 10,000	김필남 20,000	심규암 5,000
김용태 10,000	박성은 5,000	김정자 5,000
김명옥 20,000	김옥희 5,000	김기수 20,000
정경석 20,000	이승환 5,000	구정대 20,000
박대희 5,000	김수자 10,000	황래환 10,000
이남희 10,000	권지현 20,000	김민주 10,000
강소남 5,000	권준자 30,000	박원태 15,000
이전희 5,000	김경자 10,000	유명옥 10,000
김원형 30,000	이정희 30,000	김기덕 20,000
박순영 5,000	배하수 10,000	이임숙 20,000
김진성 10,000	양혜진 10,000	신애란 20,000
이창수 10,000	이정연 5,000	최금부 10,000
한규매 10,000	정태고 5,000	정숙희 20,000
정연이 5,000	이복희 10,000	박경란 10,000
이인순 5,000	송정숙 5,000	신귀화 20,000
김봉숙 5,000	권순영 10,000	김순덕 20,000
오난옥 5,000	이호동 5,000	김양순 20,000
이병희 10,000	고연숙 10,000	권오관 20,000

손수연 10,000	석금옥 20,000	최창숙 5,000
김수곤 5,000	윤윤근 20,000	장민석 10,000
이준우 5,000	최지희 10,000	장성규 5,000
박수진 10,000	정혜련 5,000	김미자 10,000
권순득 20,000	정영주 20,000	조인성 5,000
김정숙 5,000	김경희 20,000	박경자 5,000
정혜숙 10,000	이성건 20,000	박희조 5,000
금명섭 5,000	권순칠 10,000	정민경 10,000
박남희 30,000	박종규 10,000	허유미 5,000
권순미 10,000	정명선 20,000	남기웅 10,000
이달철 20,000	최영희 10,000	이정희 5,000
배판식 20,000	최윤희 5,000	황영희 20,000
김철호 20,000	이정화 10,000	성기옥 10,000
이주현 10,000	김순연 5,000	김명숙 10,000
이정현 10,000	김미정 10,000	문성섭 10,000
이은경 10,000	박성숙 5,000	홍기학 10,000
김혜주 10,000	정옥수 5,000	박종환 10,000
김옥희 20,000	박동규 5,000	강병철 10,000
전효원 20,000	이성환 5,000	장재혁 5,000
강병철 10,000	반룡사 10,000	이재봉 5,000
여병문 10,000	정경숙 10,000	권영철 5,000
진윤아 20,000	이용옥 10,000	김정규 5,000
박정숙 20,000	김외환 10,000	한희록 10,000
김희영 20,000	정순옥 5,000	김경호 10,000
엄희섭 5,000	신화식 10,000	진봉희 10,000
김진숙 20,000		
서준석(성인자)	10,000	
유경희(차목원)	20,000	
류훈자(지일)	5,000	
용마관음사	30,000	

합계 : 1,99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박재용 3만원, 강미경 1만원,
임상덕 1만원, 이영주 3만원

◎ 지출내역

CMS수수료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44,000원
SMS수수료	500원
케이크 구입비	76,000원
우편발송비	13,580원
물품구입비	147,800원
보호자 간담회 준비금	188,400원

총지출 514,28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유영철, 김용섭, 박성용

◎ 후원물품 보내신 분

양일생 어르신 보호자님 : 기저귀 3개, 패드 3개
우영근 지장회장님 : 케이크 6개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사자

유영철 사회복지사

◎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소어르신

김기문 어르신, 박정숙 어르신
박용순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40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제40회 백고좌법회를 2020년 1월 9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2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40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28일차
14. 안락행품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주지



• 29일차
자유주제

마성스님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 40일차
25. 관세음보살
보문품

원순스님
송광사 인월암 주석



• 46일차
3. 보현삼매품
4. 세계성취품

지오스님
부산 범어사 교수사

혜성스님 ▶ 일시 : 불기 2564년 1월 9일 ~ 2564년 4월 17일(100일간)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24일차	2월 1일(土)	주지스님		37일차	2월 14일(金)	상범스님	대전 구봉 선원장
25일차	2월 2일(日)	주지스님		38일차	2월 15일(土)	혜성스님	함안 삼불사 주지
26일차	2월 3일(月)	정초방생		39일차	2월 16일(日)	현주스님	조계종교연구사사무국장
27일차	2월 4일(火)	지수스님	김천 금룡사 주지	40일차	2월 17일(月)	원순스님	송광사 인월암 주석
28일차	2월 5일(水)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주지	41일차	2월 18일(火)	경조 비구니 스님	대전 보현정사 주지
29일차	2월 6일(木)	마성스님	팔리문헌 연구소장	42일차	2월 19일(水)	선진 비구니 스님	대구 상동 보현암 주지
30일차	2월 7일(金)	정도스님	서울 동국대학 교수	43일차	2월 20일(木)	일장 비구니 스님	화순유마암기대 학장
31일차	2월 8일(土)	관일스님	영천 도솔암 법사	44일차	2월 21일(金)	현석스님	대구 반야사 주지
32일차	2월 9일(日)	대주스님	순천 대륜사 주지	45일차	2월 22일(土)	원범스님	운문 승가대학 교수
33일차	2월 10일(月)	여현 비구니 스님	서울 동국대 교수	46일차	2월 23일(日)	지오 스님	부산 범어사 교수사
34일차	2월 11일(火)	경성스님	합천 해인사 율주	47일차	2월 24일(月)	초하루	
35일차	2월 12일(水)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48일차	2월 25일(火)	한간스님	원주 성불원장
36일차	2월 13일(木)	대업스님	용연사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